

分司大藏都監版「宗鏡錄」의 底本考*

The Original of *Jongkyungrok*, Published in Bunsadogam

柳富鉉(Yoo, Boo-Hyun)**

◁ 목 차 ▷

- | | |
|---------------------|--------|
| 1. 緒言 | 4. 結言 |
| 2. 「宗鏡錄」의 編纂과 入藏 | <참고문헌> |
| 3. 分司大藏都監版「宗鏡錄」의 底本 | |

< 초 록 >

본고는 分司都監版「宗鏡錄」의 所從來를 구명하기 위해 「宗鏡錄」의 編纂과 入藏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分司都監版「宗鏡錄」의 底本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구명되었다.

첫째, 「宗鏡錄」은 延壽(904~976)가 편찬한 저술로서 天觀元年(1107)에 「崇寧藏」에 入藏되었다. 둘째, 分司都監版「宗鏡錄」은 「崇寧藏」이나 「毘盧藏」 중에서 뒤에 補板된 「종경록」을 底本으로 하고, 高麗의 실정에 맞게 수정되어 覆刻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分司都監版「종경록」의 「字文 兩次」는 「崇寧藏」이나 「毘盧藏」에 入藏된 「종경록」의 兩次가 入습된 것이었다.

요어 : 분사대장도감, 종경록

< ABSTRACT >

This study focuses on the original of *Jongkyungrok*, by studying collection and entry of *Jongkyungrok* in order to bring light on the source of *Jongkyungrok*, published in Bunsadog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Jongkyungrok* is the book compiled by Yoonsu(904~976) and it is entered in Sungnyoungjang in 1107, during the era of Daegam. Second, Bunsadogam's *Jongkyungrok* is based on the basis of Sungnyoungjang's *Jongkyungrok* and Berojang's *Jongkyungrok*, which has been modified and recorded along with actual circumstances of Korea. Third, *Jongkyungrok*'s Chunjamun order of Bunsadogam's corresponds to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大眞大學校 學術硏究費 支援에 依한 것임.

** 大眞大學校 文獻情報學科 副教授 (boohyun@daejin.ac.kr)

접수일: 2005년 5월 2일 최초심사일: 2005년 5월 6일 심사완료일: 2005년 6월 20일

書誌學研究 第30輯(2005. 6)

the order of Jongkyungrok, which is entered in Sungnyoungjang and Berojang

keywords : Bunsadaejangdogam, Jonggyungrok

1. 緒言

「宗鏡錄」은 禪宗에서의 心과 天台·華嚴·法相 등 敎宗의 諸派에서 설하는 心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설명하는 저작이다. 唐·宋시대의 禪과 敎에 관한 연구에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현재에 전해지지 않는 문헌이나 文句 등의 인용은 대단히 중요하다.¹⁾

「宗鏡錄」은 현재 散帙된 채 혹은 完帙로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완질로 전해지는 것 가운데 高麗 高宗 33년(1246)부터 35년(1248)까지 慶尙南道 南海 分司都監에서 開板된 것이 가장 오래된 版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經板은 지금까지도 海印寺 藏經閣에 高麗再雕大藏經板과 함께 보존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南海 分司大藏都監에서 開板된 「宗鏡錄」(이하 分司都監版 「宗鏡錄」으로 약칭함)은 再雕大藏經의 補遺板으로 알려져 왔다.

그렇지만 補遺板에 대한 의미에 있어서 학자들 간에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왔고, 이 分司都監版 「宗鏡錄」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 왔다. 첫째, 補遺板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分司都監版 「宗鏡錄」과 再雕大藏經의 關係에 관한 것이었다. 즉 朴泳洙는 分司都監版 「宗鏡錄」이 再雕大藏經의 ‘補板’인 것²⁾으로 인식하였고, 徐首生은 ‘副藏(補遺藏經)’으로 이해하였으며,³⁾ 朴相國은 分司都監版 「宗鏡錄」을 ‘高麗大藏都監板’으로 볼 수 있는 것⁴⁾으로 주장하였고, 金潤坤은 ‘外藏’으로 인식하고자⁵⁾ 하였다. 둘째, 分司都監版 「宗鏡錄」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은 分司都監版 「宗鏡錄」의 千字文 函次이다. 分司都監版 「宗鏡錄」의 千字文 函次는 「祿·侈·富·車·駕·肥·輕·策·功·茂」 등 10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再雕大藏經의 「新集藏經音義隨函錄」의 일부와 「蓮華心輪廻

1) 김주경, “「宗鏡錄」의 문헌적 성격과 인용된 僧肇 저술의 분석,” 『白蓮佛敎論集』 10집(2000), 95.

2) 朴泳洙, “高麗大藏經版의 研究,” 『高麗大藏經研究資料集』 2집(1989), 230(原載 『白性郁博士頌壽紀念 佛敎學論文集』, 동국문화사, 1959).

3) 徐首生, “大藏經의 二重板과 補遺藏經 研究,” 『東洋文化研究』 4(1977), 59.

4) 朴相國, “海印寺 大藏經板에 대한 再考察,” 『高麗大藏經研究資料集』 2(1989), 351.(原載 『韓國學報』 33(1983)).

5) 金潤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2002), 85.

文偈頌, 「秘藏詮」, 「逍遙詠」, 「緣識」 및 貞元本 「大方廣佛華嚴經」의 일부에 해당되는 函次와 중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函次의 중복에 대해서 徐首生은 “再考해야 할 것”⁶⁾으로 언급하였고, 千惠鳳은 “어째서 이중으로 函次를 매겼는지 그 까닭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⁷⁾고 하였으며, 일찍이 池內宏은 “宋延壽 撰의 宗鏡錄을 「宋朝新譯經論」의 뒤에 編入시키려다 이미 初雕本에서 굳어진 函次를 크게 변경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바꾸어 編入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⁸⁾고 하였다. 반면에 朴相國은 “宗鏡錄은 卷首題와 版首題 아래에 보이는 函次表示로 보아서 正藏의 범주에 들어가는 經板임에 틀림없다. 이 宗鏡錄이 正藏目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 그러나 宗鏡錄은 이미 大藏目錄을 완성한 후에 등장하여 이들 宗鏡錄과 중복되는 祿~茂函까지 수록된 6種의 經板을 대신하여 수록할 목적에서 板刻되었을 것이나 宗鏡錄과 중복되는 函의 經을 제외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중간에서 대장목록에 수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⁹⁾고 하여 宗鏡錄과 중복되는 祿~茂函까지 수록된 6種의 經板을 대신하여 수록할 목적에서 板刻되었기 때문에 함차가 중복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인식의 차이를 보여 왔던 分司都監版 「宗鏡錄」과 再雕大藏經의 關係와 分司都監版 「宗鏡錄」에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函次의 重複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원인규명은 分司都監版 「宗鏡錄」의 所從來를 구명함으로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먼저 「宗鏡錄」의 編纂과 大藏經 入藏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分司都監版 「宗鏡錄」의 底本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6) 徐首生, “大藏經의 二重板과 補遺藏經 研究,” 「東洋文化研究」4(1977), 62.

7)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 (汎友社, 1990), 76.

8) 池內宏, “高麗朝の大藏經(下),” 「東洋學報」13, 117(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 (汎友社, 1990), 76에서 再引用).

9) 朴相國, “海印寺 大藏經板에 대한 再考察,” 「高麗大藏經研究資料集」2(1989), 348.(原載 「韓國學報」33(1983)).

2. 「宗鏡錄」의 編纂과 入藏

「宗鏡錄」은 法眼宗의 선사 永明延壽(904~976)가 편찬한 저술이다. 연수선사는 越國 餘杭 출신으로 字는 冲玄, 俗姓은 王氏이며 30세에 舍參 선사에게 출가하였다. 「宗鏡錄」의 성립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선사가 淨慈寺에 主持하던 961년 이후에 완성되었다. 「종경록」은 편찬된 뒤 무슨 이유인지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채 100여 년쯤 묻혀 있다가, 慧林寺 圓照宗本(1022~1099)스님이 발견해서 세상에 알린 후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¹⁰⁾ 이후 大觀元年(1107)에 와서 대장경으로서는 처음으로 「崇寧藏」에 입장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崇寧藏」本 「宗鏡錄」卷第三(中國 國家圖書館所藏)의 卷首에 있는 다음과 같은 題記에 의해서 확인된다.

“福州等覺禪院住持傳法沙門普明 收印經板頭錢 恭爲今上皇帝祝延聖壽 崗郡官僚同資祿位 雕造宗鏡錄一部 計一十函 時大觀元年(1107) 五月日謹題”.

3. 分司大藏都監版 「宗鏡錄」의 底本

大藏經 중에서 分司都監版 「종경록」보다 앞서 간행된 것으로는 宋의 「崇寧藏」·「毘盧藏」·「資福藏」 등에 入藏된 「종경록」이 있다. 이들의 千字文 兩次는 「崇寧藏」·「毘盧藏」이 「祿~茂」로서 分司都監版 「종경록」과 일치하고 있고, 「資福藏」은 「濟~感」으로서 다르다.¹¹⁾ 이를 보면 「資福藏」에 입장된 「종경록」은 分司都監版 「종경록」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分司都監版 「종경록」과 千字文 兩次가 일치하는 「崇寧藏」·「毘盧藏」에 입장된 「종경록」과 「崇寧藏」·「毘盧藏」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다시 分司都監版 「종

10) 김주경, “「宗鏡錄」의 문헌적 성격과 인용된 僧肇 저술의 분석,” 『白蓮佛敎論集』 10(2000), 83-95.

11) 蔡運長, 「二十五種藏經目錄對照考釋」(新文豐出版公司, 1983), 231.

경록」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崇寧藏」·「毘盧藏」에 입장된 「종경록」에 대해서 이들의 現存本을 필자가 실사해 본 것은 다음의 3種이다.

- ① 「崇寧藏」本 「宗鏡錄」卷第三(中國 國家圖書館所藏)
- ② 「毘盧藏」本 「宗鏡錄」卷第二十(韓國 東國大學校教授 韓普光所藏)
- ③ 「毘盧藏」本 「宗鏡錄」卷第七十四(中國 國家圖書館所藏)

「崇寧藏」에 입장된 「종경록」은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大觀元年(1107)에 大藏經 중에서는 처음으로 「崇寧藏」에 입장된 것이다. 「毘盧藏」에 입장된 「종경록」은, 「毘盧藏」이 崇寧 2년(1103)에 雕造가 시작되어 紹興 21년(1151)에 全藏의 雕造가 완료되었으니,¹²⁾ 大觀元年(1107)이후 紹興 21년(1151) 사이에 雕成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崇寧藏」·「毘盧藏」에 입장된 「종경록」의 版式은 每版 즉 每張은 36行, 每行은 17字로 되어 있으며, 每張은 다섯 번을 折疊하여 6개의 半葉으로 이루어져 있는 折疊裝이다. 또한 「崇寧藏」에 입장된 「종경록」에는 앞에서 살펴 본대로 卷首에 “福州等覺禪院住持傳法沙門普明 收印經板頭錢 恭爲今上皇帝祝延聖壽 闔郡官僚同資祿位 雕造宗鏡錄一部 計一十兩 時大觀元年(1107) 五月日謹題”라는 題記가 3行에 걸쳐 기재되어 있고 제4행에 經題가 기재되어 있으며, 「毘盧藏」에 입장된 「종경록」에는 이러한 題記가 삭제된 채 3행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崇寧藏」·「毘盧藏」에 입장된 「종경록」에는 版首題가 “(兩次) (卷次) (張次) (刻手名)”의 내용과 구성으로 제1판을 제외한 每版 第6행과 第7행 사이에 기재되어 있다.

한편 「崇寧藏」·「毘盧藏」兩藏은 每函이 10冊으로 이루어졌는데 每函 內에는 單行本 音義 1冊이 들어있다. 그러나 뒤에 補板한 것은 音義를 卷冊의 뒤에 附刊한 것도 있다.¹³⁾

다음으로 分司都監版 「종경록」에 대해서는 原本을 확인할 길이 없어 단지 影印本에 의거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版式은 每張이 30行, 每行은 17字로 되

12) 李際寧, 「佛經版本」(江蘇古籍出版社, 2002), 77.

13) 李際寧, 「佛經版本」(江蘇古籍出版社, 2002), 77.

어 있다. 每張은 네 번을 折疊하여 5개의 半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折疊裝의 內部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장정이 折疊裝 혹은 卷軸裝으로 製冊된 것인지는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分司都監版 「종경록」에는 「崇寧藏」에 기재되어 있는 題記가 없으며 또한 「毘盧藏」에 남아 있던 題記에 해당되는 공백도 없이 卷首 1행에 經題가 기재되고 있다. 그리고 分司都監版 「종경록」에는 版首題가 “(略經題) (卷次) (張次) (兩次)”의 내용과 구성으로 제1판을 제외한 每版 제1행 앞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分司都監版 「종경록」에는 「崇寧藏」·「毘盧藏」에서 每函 內에 單行本 1冊에 기재되었던 音義가 各卷 卷末에 附刊되어 있으며, 이 音義 다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의 刊記가 새겨져 있다.

- ① 丙午歲分司大藏都監開板
- ② 丁未歲分司大藏都監開板
- ③ 丁未歲高麗國分司大藏都監奉勅雕造
- ④ 丁未歲高麗國分司南海大藏都監開板
- ⑤ 丁未歲分司大藏都監雕造
- ⑥ 戊申歲分司大藏都監開板

이상에서 살펴 본 것에 의하면 分司都監版 「종경록」과 「崇寧藏」·「毘盧藏」에 입장된 「종경록」은 版式 즉 한 版의 구성에 있어서 비록 行字數는 일치하지만 版首題의 형식, 折疊되는 부분 등이 다르고, 또한 題記와 刊記 등도 각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상호간에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分司都監版 「종경록」과 「崇寧藏」·「毘盧藏」에 입장된 「종경록」은 千字文 兩次가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대조했을 때 전체적인 모습은 물론하고 글자의 字形, 글자간의 간격과 위치 등이 附錄의 圖版에서 확인되듯이 완전히 일치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分司都監版 「종경록」의 所從來가 「崇寧藏」이나 「毘盧藏」에 입장된 「종경록」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分司都監版 「종경록」의 千字文 兩次는 「崇寧藏」이나 「毘盧藏」에 입장된

「종경록」의 兩次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分司都監版 「종경록」이 「崇寧藏」이나 「毘盧藏」에 입장된 「종경록」을 底本으로 해서 覆刻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分司都監版 「종경록」에는 「崇寧藏」·「毘盧藏」과는 달리 音義가 各卷 卷末에 合刊되어 있으며, 둘 사이에는 미세한 文字異同¹⁴⁾도 발견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崇寧藏」이나 「毘盧藏」에 입장된 「종경록」이 分司都監版 「종경록」의 직접적인 底本이 아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分司都監版 「종경록」의 직접적인 底本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필자의 추측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崇寧藏」·「毘盧藏」 중에서 뒤에 補板한 것은 音義를 卷冊의 뒤에 合刊한 것도 있는 경우로 보아서, 「崇寧藏」이나 「毘盧藏」 가운데 뒤에 補板된 「종경록」이 分司都監版 「종경록」의 底本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分司大藏都監에서는 이 「종경록」을 覆刻하여 雕造할 때는 版首題와 刊記 등은 高麗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 結 言

本稿는 分司都監版 「宗鏡錄」과 再雕大藏經의 關係 및 分司都監版 「宗鏡錄」에서 풀리지 않았던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分司都監版 「宗鏡錄」의 所從來를 구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宗鏡錄」의 編纂과 入藏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分司都監版 「宗鏡錄」의 底本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① 「宗鏡錄」은 法眼宗의 禪師 永明延壽(904~976)가 편찬한 저술로서 그 성립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禪師가 淨慈寺에 主持하던 961년 이후에 완성되었고, 이후 大觀元年(1107)에 비로소 「崇寧藏」에 入藏되었다.

② 分司都監版 「宗鏡錄」은 宋의 「崇寧藏」이나 「毘盧藏」 중에서 뒤에 補板된

14) 여기에서 말하는 “미세한 文字異同”이란 것은 약간의 異體字를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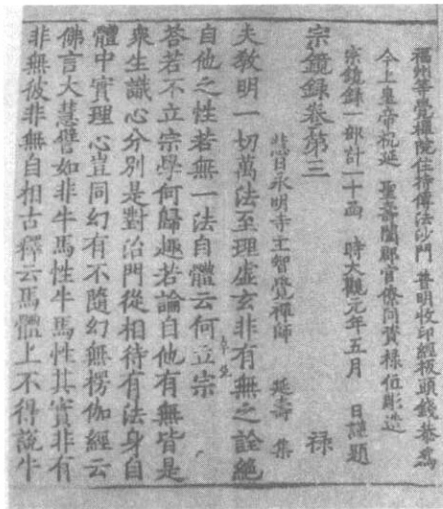
「종경록」을 底本으로 하고, 版首題와 刊記 등은 高麗의 실정에 맞게 수정되어 覆刻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③ 分司都監版「종경록」의 千字文 函次는 「崇寧藏」이나 「毘盧藏」에 入藏된 「종경록」의 函次로서 高麗再雕大藏經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分司都監版「종경록」은 「崇寧藏」이나 「毘盧藏」가운데 뒤에 補板된 「종경록」을 底本으로 해서 覆刻되면서 그 千字文 函次까지도 그대로 覆刻·因襲되었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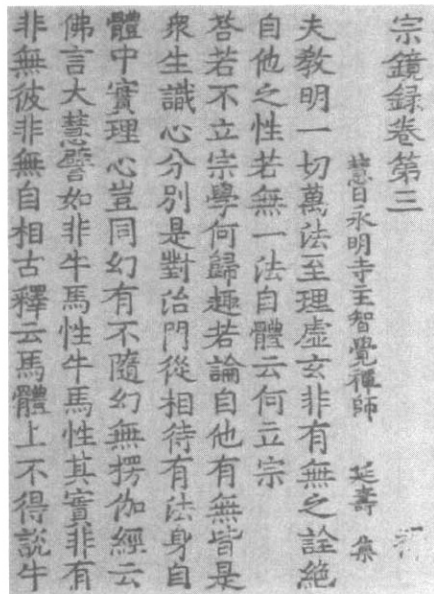
<참고문헌>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汎友社, 1990.
- 蔡運辰. 「二十五種藏經目錄對照考釋」. 新文豐出版公司, 1983.
- 李際寧. 「佛經版本」. 江蘇古籍出版社, 2002.
- 朴泳洙. “高麗大藏經版의 研究.” 「高麗大藏經研究資料集」2(1989).
- 徐首生. “大藏經의 二重板과 補遺藏經 研究.” 「東洋文化研究」4(1977). 59.
- 朴相國. “海印寺 大藏經板에 대한 再考察.” 「高麗大藏經研究資料集」2(1989). 金潤坤.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불교시대사, 2002.
- 김주경. “「宗鏡錄」의 문헌적 성격과 인용된 僧肇 저술의 분석.” 「白蓮佛敎論集」10(2000).

<「崇寧藏」本「宗鏡錄」卷第三 卷首(中國 國家圖書館所藏)>



<分司大藏都監版「宗鏡錄」卷第三 卷首>



<「毘盧藏」本「宗鏡錄」卷第二十 卷首 (韓國 東國大學校教授 韓普光所藏)>

宗鏡錄卷第二十
 慧日永明寺主智覺禪師 纂集 俊
 夫正因佛性衆生共有經云不由觀智所顯
 則道常披露云何異生迷而不悟
 答智論云衆生心性猶如利刀唯用割泥泥
 無所成刀日就損理體常妙衆生自麤能善
 用之即合本妙又譬如一器中水淡味恒然
 若著甘草則甜下黃連則苦衆生心水亦復
 如是起妄染則凡冥真空則聖其心之性未
 嘗變異如華嚴經偈云譬如淨日月皎鏡在

<分司大藏都監版「宗鏡錄」卷第二十 卷首 >

宗鏡錄卷第二十
 慧日永明寺主智覺禪師 纂集 俊
 夫正因佛性衆生共有經云不由觀智所顯
 則道常披露云何異生迷而不悟
 答智論云衆生心性猶如利刀唯用割泥泥
 無所成刀日就損理體常妙衆生自麤能善
 用之即合本妙又譬如一器中水淡味恒然
 若著甘草則甜下黃連則苦衆生心水亦復
 如是起妄染則凡冥真空則聖其心之性未
 嘗變異如華嚴經偈云譬如淨日月皎鏡在

<「毘盧藏」本「宗鏡錄」卷第二十 卷末 (韓國 東國大學校教授 韓普光所藏)>

又復於一毛端中盡攝諸法皆明見以此真
見故成無緣慈普令法界衆生見聞獲益所
以經云譬如日月不作往來照明之心以諸
衆生福德力故自行往反壞諸暗冥若入此
宗鏡中則無一法可取皆同性故無一法可
捨絕異相故是以聖人常善救人而無弃人
常善救物故無弃物夫云善者莫非知宗方
爲究竟之上善若救人成同體之悲若救物
歸無相之理則善外無法何弃之乎

宗鏡錄卷第二十
十一卷尾
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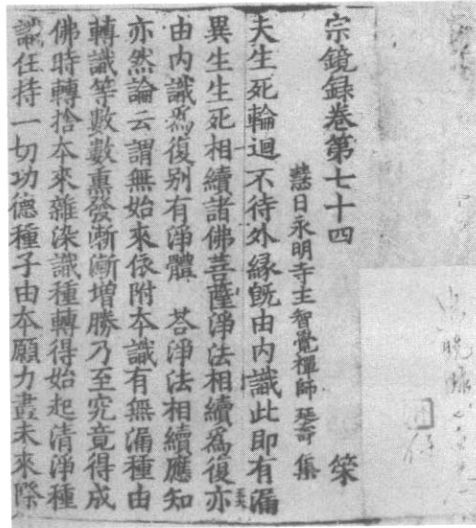
<分司大藏都監版「宗鏡錄」卷第二十 卷末>

又復於一毛端中盡攝諸法皆明見以此真
見故成無緣慈普令法界衆生見聞獲益所
以經云譬如日月不作往來照明之心以諸
衆生福德力故自行往反壞諸暗冥若入此
宗鏡中則無一法可取皆同性故無一法可
捨絕異相故是以聖人常善救人而無弃人
常善救物故無弃物夫云善者莫非知宗方
爲究竟之上善若救人成同體之悲若救物
歸無相之理則善外無法何弃之乎

宗鏡錄卷第二十
俊

音義
稟 爲貴反 霽 子計反 靈 莫皆 邀 於育反 隳 許
類也 霽 而止也 靈 莫皆 邀 於育反 隳 許

<「毘盧藏」本 「宗鏡錄」卷第七十四 卷首(中國 國家圖書館所藏)>



<分司大藏都監版 「宗鏡錄」卷第七十四 卷首>

